

## 6 기획-국제캠 샛길

## 위험성 큰 샛길 보행 단계적 개선 필요

박서현 기자 parkseohyun@khu.ac.kr

# 캠퍼스 안 보행로에는 차도를 따라 이어지는 인도 외에도 ‘샛길’이 있다. 샛길은 넓은 부지 안쪽에 놓인 건물들을 이어주는 지름길 역할을 하며 보행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샛길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통행 안전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우리신문은 국제캠퍼스(국제캠) 샛길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짚어봤다.

국제캠 샛길  
관리 미흡·조명 부재·비포장도로  
통행에 위험성 높여

【국제】국제캠에는 ▲제2기숙사 A동-서천동 샛길(제2기숙사 샛길) ▲국제대학(국제대)-중앙도서관 샛길(국제대 샛길) ▲학생회관-제2기숙사 B동 샛길(학생회관 샛길) ▲중앙도서관-서천동(중앙도서관 샛길) ▲공과대학-용인시 등에 샛길이 있다.

샛길은 모두 비포장도로다. 흙길이 오랜 통행으로 다져졌다. 길 일부에는 설치물이 있어 통행을 보조한다. 국제대 샛길은 급한 경사에 자연석 계단을 만들었다. 학생회관 샛길은 군데군데 나무 계단과 벽돌이 깔려 있다. 제2기숙사 샛길은 흙바닥 위에 벚짖이 깔려 있고 경사로에 돌계단이 있다.

우려의 목소리는 샛길을 이용할 때 통행 안전이 위험하다는 이유에서 비롯된다. 일차적으로 설치물의 유지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생회관 샛길에 깔려 있는 벽돌 중 일부는 고정돼 있지 않으며 나무 계단은 군데군데 부서져 못이 3cm 이상 드러나기도 했다. 제2기숙사 샛길의 돌계단도 간격과 각도가 제각기 다르고 일부는 아예 파손됐다. 국제대 샛길의 자연석 계단은 지나치게 높고 가파르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일부 구간에 조명이 없다는 것도 통행의 위험을 높인다. 학생회관 샛길은 산을 올라간 이후에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으나 계단이 있는 제2기숙사 초입에는 조명이 설치돼 있지 않다. 제2기숙사 샛길 역시 휴먼장을 넘어가면 조명이 없다. 중앙도서관 샛길도 마찬가지다. 해당 구간들은 야간 통행 시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지 않으면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① 학생회관 샛길은 관리되지 않아 보행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다. ② 제2기숙사 샛길 돌계단은 간격과 각도가 제각각이다. ③ 국제대 샛길은 조명이 없어 야간 통행 시 위험이 크다.

비포장도로라는 한계 역시 크다. 비포장도로는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우천 시에는 땅이 질어지고 물웅덩이가 생겨 통행이 더욱 어려워진다. 돌계단의 경우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대 샛길 초입에는 “눈, 비로 인한 기상악화 시 미끄럼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통행을 삼가라는 안내문이 있을 뿐이다.

산지 개발에 어려움 있어  
소유권 문제 얽히기도  
적극적 시도로 개선 가능성

도로 포장을 비롯한 샛길 개선을 위해서는 토지 개발이 가능해야 한다. 더불어 소유권자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학생회관 샛길과 중앙도서관-서천동 샛길 일부 구간은 지적도 상에서 산지로 분류된다. 제2기숙사 샛길은 우리학교 소유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됐다. 총무관리처 관리팀은 학생회관 샛길이 “학교가 공식적으로 조성한 길이 아니라 등산로이다”라며 “다른 길이 있음에도 학생들이 편의를 위해 등산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지를 훼손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며 산지 개발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통행 목적으로 하가가 낫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 없다”고 덧붙였다.

국제대 샛길에 대해서는 “안전한 조치가 어렵다”며 “국제대학 학생

회 역시 문제를 인지한 상태이고 해당 샛길은 학생회와의 협의 하에 폐쇄를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대 학생회는 “해당 길을 이용하는 학우분들이 아직 많아 당장 폐지할 경우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학생회관 옆 언덕을 통해 넘어오는 길을 지향해달라는 안내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2기숙사 샛길 역시 도로 포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기흥구 도로과 도로관리팀은 “제2기숙사 샛길은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며, 도로포장은 공공성을 만족해야 한다”면서 “제2기숙사 샛길 포장은 경희대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 제2기숙사 샛길에 조명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도로관리팀은 “여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주에라도 설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유지와 LH 소유지는 손댈 수 없지만 용인시 관할인 방음벽 쪽에 보안등과 투광기 2개구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사유지를 건드리기는 힘들지만 학교 측 역시 투광기 등을 설치해 길을 최대한 넓게 비추도록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건물과 도로를 이어  
보행에 편리함 제공  
단계적 개선 원하는 목소리

캠퍼스 내 대부분의 샛길은 국제캠 학생들이 이용하는 길이다. 샛길을 이용하면 보행 경로가 짧아져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보행자가 국제대 샛길을 이용하지 않고 국제대에서 중앙도서관으로 이동하려면 사색의 광장을 가로질러야 한다. 걸어야 할 거리도 길어지고 배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

학생회관 샛길 역시 마찬가지로의 역할을 한다. 학생회관 샛길은 보행자가 혈떡고개를 넘어가지 않고 정문 방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다. 특히 샛길을 지나 도착하는 대운동장 앞은 소속 단과대학에 상관없이 이용하는 기숙사와 학생식당, 멀티미디어관이 위치한다. 샛길의 이용량이 자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샛길은 캠퍼스 안팎을 잇기도 한다. 제2기숙사 샛길은 기숙사 건물과 서경삼거리 앞 서천로를 잇는다. 중앙도서관 샛길은 자취촌이 위치한 서천동으로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샛길을 이용하지 않고 중앙도서관에서 서천동 방면으로 나가려면 사색의 광장에서 버스를 탑승하고 정문을 통과해 용인시 방면으로 돌아와야 한다.

제2기숙사 사생 A 씨는 “공식적인 길이 아니라서인지 모르겠으나 관리가 소홀한 것 같다”며 “샛길 개선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류시명(응용물리학 2021) 씨는 “국제대 샛길의 경우 비가 오면 정말 미끄러운데 잘못하면 사고가 날 것 같아 이용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우리학교 샛길 전반에 대해서는 “말만 ‘샛길’이지 학생들이 아주 많이 이용한다”며 “장기적으로 포장된 길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